



2015 세법개정

# ‘만능통장’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종교인 과세 재추진

### 청년 정규직 늘린 기업 1명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 대기업 비과세 혜택 축소 등 개편으로 세수 1조원 증가

정부가 근로자 재산을 불러줄 목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종교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기획재정부 회의에서

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

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조정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세 정년제’ 여파로 한층 심각해진 청년실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 제도

는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 비과세·감면혜택을 축소키로 하는 등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다양한 세수확충 대책을 담았다.

아울러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금 탈루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

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련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V,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음, 로열티,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했다.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귀금속 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가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세계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마용성형 수술을 받

을 경우 내년 4월부터 1년간 부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원화 강세를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펀드에는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취득할 때까지 미뤄주고,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의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1조892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 폭염에 에어컨 주문 폭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스마트 Q9000’ 판매  
7월말 보다 2.5배 늘어

국내 대표 에어컨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지난달 말부터 찾아온 폭염에 에어컨 주문이 폭주하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기록하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면서 급증하는 주문물량에 맞추기 위해 에어컨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대표 제품인 스마트에어컨 ‘Q9000’은 7월 마지막 주 판매량이 전주 대비 2.5배, 지난해 동기 대비 3배나 늘었다.



6일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강남본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삼성전자 스마트에어컨 ‘Q9000’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실적이 저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에어컨 판매량이 대폭 늘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 5월부터 생산량 늘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본격 판매가 이뤄져야 할 6월 들어 기온이 떨어지며 판매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광주 지역의 경우 5월 하순부터 연일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들었고, 6월 중순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졌지만 6월 말부터 최고 기온이 20도 중반으로 낮아졌다.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에어컨 판매도 한동안 부진했으나 이날 들어 불볕더위를 타고 다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한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보상 판매전’도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매장에서 Q9000시리즈 제품을 구매한 뒤 구형 에어컨을 반납하면 최대 60만원을 할인해 주는 보상판매도 주문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스마트에어컨 Q9000은 개별 제어가

가능한 3개의 바람문이 뿜어내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특징이며 에어 3.0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내의 온도·습도·청정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압축기와 모터의 효율을 높여 전 모델 1등급의 150% 이상 효율을 갖춘 에너지 프론티어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9000 시리즈가

폭염과 보상 판매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올 여름 대세 에어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판매 폭증으로 배송과 설치가 지연되는 일부 지역도 발생하고 있어 에어컨 구매를 하신 고객은 빨리 주문해 주시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현대·기아차 7월 판매 ‘쌍쌍’

### 내수 점유율 68.9% 전달보다 1.6%p 올라...3개월만의 반등

현대·기아자동차의 내수 점유율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 7월 내수시장 점유율은 68.9%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은 지난 4월 69.4%를 기록한 이래 5월 67.6%, 6월 67.3%로 감소세였다. 올해 최대 시장점유율은 지난 4월 69.4%였다.

특히 기아차는 7월 내수 점유율이 30.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지난해 11월 30.7% 이후 8개월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있으나 올해 들어 6월까지 점유율 66.9%에서 0.8%포인트 상승해 하반기 회복세가 기대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5만9957대와 4만8202대를 팔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5%와 13.9%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국산 브랜드 신차가 쏟아져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기아차 K5

2013년 이후 지난달까지 기아차가 내수 점유율 30%를 넘어선 달은 2013년 5회, 지난해 2회 그리고 올해는 7월뿐이다.

올해 1~7월 누계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은 67.7%였다. 2013년 71.4%, 지난해 69.3%로 하락하고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3.29 (-16.47)	▼ 금리 (국고채 3년) 1.79% (-0.01)
▲ 코스닥 747.74 (+6.48)	▼ 환율 (USD) 1166.20원 (-7.40)

##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 나는 몸신이 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